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 나타난 섬진강과 송화강의 지역성 연구

조윤아*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실재하는 공간의 지명을 사용한 소설 『토지』에서 ‘강’이라는 공간, 특히 섬진강과 송화강의 지역성을 작품에서 파악해냄으로써 문학적 상상력에 의한 공간 형성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이 공간을 ‘지역성’으로 분석함으로써 소설의 공간 연구에 ‘지역성’ 연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섬진강은 등장인물들의 죽음과 이별, 기다림의 장소로 의미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서술자에 의해 역사 속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은 장소로 부각된다. 등장인물들은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감하며, 이 공간에서 일상을 살거나 중요한 소식을 나누며 연대한다. 이를 통해 서민성과 마을 공동체성을 지닌 섬진강의 지역성을 보여준다.

송화강의 경우 실존인물 독립운동가가 등장하고, 서술자가 역사적인 사실을 진술하면서 민족적인 의미를 강하게 부여 받는다. 그 외 조선의 독립을 갈망하는 등장인물들에 의해서도 민족적인 의미가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송화강의 지역성은 생활이 아니라 개념, 즉 민족의식에 한해서만 공동체성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토지』에서 두 강의 대비되는 공간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장소성이나 민족의식 등을 포함하는 용어로서 ‘지역성’을 규정하고 적용함으로써 공간 연구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데에 가치가 있다.

주요어: 박경리, 소설 『토지』, 공간 연구, 섬진강, 송화강, 지역성, 장소성, 공동체성, 민족의식

*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조교수(juventa2@hanmail.net)

| 차례 |

1. 서론
2. 마을 공동체성의 섬진강
3. 민족 공동체성의 송화강
4. 결론

1.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문학 작품에 나타나 있는 공간 배경은 실재하는 지명을 사용할 경우 크게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 하나는 실재하는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며, 다른 하나는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작품 내 형성된 공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다. 전자의 경우는 실재하는 역사적이며 지리적인 정보와 함께 그 지역에 펼쳐진 인간의 삶과 문화를 들여다보게 한다. 짐작할 수 있듯이 후자, 다시 말해 작품 내 문학적 상상으로 구현한 실명 공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자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작가는 그 영향력 안에서 서사를 만들고, 독자 역시 그 영향권에서 상상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가는 지난 기록물을 참고하면서 창작을 하고, 때때로 독자는 작품에 등장하는 실명 공간들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싶어 한다. 실명 공간을 사용하지 않은 작품을 접근할 때와는 다른 현상이다.

본 연구는 한 작품 내에 혼재하거나 융합되어 있는 전자의 공간과 후자의 공간 특성을 분리 분석한다면 문학적 상상력으로 형성한 지역성과 실재 공간의 지역성 사이에 차이가 드러날 것이며, 이것을 통해 문학작품이 만들어내는 공간적 상상력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왜냐하면 실명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의 경우 실

재하는 공간의 지역성에 작품 속 지역성이 매몰되어버리거나, 심각하게는 작가가 형성한 공간 묘사나 설명이 실재와 달라서 틀렸다는 지적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재하는 공간의 지명을 사용한 소설 『토지』에서 지역성을 작품 속 공간에서 파악해냄으로써 문학적 상상력에 의한 공간 형성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강’이라는 공간의 지역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강’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 연구에서 빈번하게 분석되었던 상징성과는 다른 공간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대비를 드러내는 섬진강과 송화강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행하게 될 것이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 이외 다른 강들의 지역성을 분석함으로써 소설 『토지』에서 강의 지역성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역성 개념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하되 소설 연구에 적합한 개념으로 재설정함으로써 소설 공간 연구의 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와 더불어 실재하는 그 공간의 지역성 분석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문학적 상상력으로 탄생한 지역성과 실재하는 지역성의 비교를 통해 학제간의 연구 교류로써 더욱 풍부한 지역성 연구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인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는 방대한 분량만큼이나 광활하고 다채로운 지리적 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개 실재하는 지명을 사용하면서 역사소설로서 공간적 배경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섬진강과 송화강의 지역성에 주목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강’에서 어떻게 지역성을 발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은 문학작품의 공간이기에 가능하다. 권순공에 의하면 “자연물로서의 지리적 공간은 그냥 평범한 강과 산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문학

작품 속에 개입되는 순간 새로운 이미지를 얻게”¹⁾ 된다. ‘강’은 흐르는 물만이 아니라, 강 위로 지나가는 배, 강이 아니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독과 나루터, 강변 길, 강가 모래사장, 강을 둘러싼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인 환경, 그리고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이 이곳의 지역성을 형성하는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건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장소성을 만들며, 이 장소성이야말로 지역성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사실 현실에서도 강과 산은 개인에게 혹은 집단에게, 사적으로 혹은 공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과 팀 크레스웰이 명확하게 구분했듯이, 지리적이며 환경적인 공간(space)은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특별한 의미 부여를 통해 장소(place)가 되기²⁾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학작품 내에서 ‘강’의 장소성(placeness)은 크고 작은 사건(event)을 중심으로 등장인물이나 서술자에 의해서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다.

문재원은 “장소에는 우리의 의도, 태도, 목적과 경험이 모두 집중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문학의 로컬리티 전략’을 장소성에서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장소는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의 기반이 되면서 맥락적이고 문화적인 의미와 관련”되며, 따라서 문학의 장소성은 작가와 독자 혹은 서술자 등에 의해, 때로는 독자적이며 때로는 중층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³⁾ 본 연구는 문학작품의 지역성에 장소성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문재원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그 장소성의 주체를 작품 내 등장인물과 서술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한편 최근 도시재생 공동연구에서 김한배·박병훈은 기존 연구에서 다

1) 권순궁, 「남한강의 문학지리와 로컬리티」, 『어문연구』 제100호, 어문연구학회, 2019, 87쪽.

2) Tim Cresswell, *Place*, 심승희 옮김, 『장소』, 시그마프레스, 2012, 9쪽.

3) 문재원, 「문학담론에서 로컬리티 구성과 전략」, 『한국민족문화』 제32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10., 87~90쪽 참조.

루어진 지역성의 개념을 정리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참고할 만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2004년 홍이식·정재용의 「집합주거단지에서 지역성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관점으로 지리적인 지역성을 강조하였다면, 2005년 정지용의 「지역사회발전학의 동향과 과제」에서는 지역사회 관점으로 인간집단이 모인 곳을 지역이자 지역성으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지역사회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은 사회를 이룬 구성원 간에 이루어진 의식, 즉 ‘유대감, 소속감’의 공유나 ‘공동체 의식’ 등의 관점으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성으로 나타나는 공동체성이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특성의 공동체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김한배·박병훈은 2006년 한진만이 「지역방송의 편성과 지역성」에서 장소성 개념을 지역성에 접목시키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장소성의 형성과 재현』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장소성 개념을 지역성 연구에서 다룬 것으로 보았다.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성과 관련한 다각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아직 어느 하나로 지역성 개념이 정립되었다기보다는 역사와 문화 등 각 영역에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개념을 그때그때 연구자가 규정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사실, 앞서 살펴보았던 장소성으로 지역성을 파악하고자 한 문재원의 2008년 연구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의 연구 성과이다.

2008년 신동선·김인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역사인물자원을 활용한 지역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와 2013년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의 『차이와 차별의 로컬리티』를 주제로 한 연구는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 타

4) 김한배·박병훈, 「도시재생의 실천적 움직임과 지역성 개념의 변화 고찰-워드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한국경관학회지』 제12권1호, 한국경관학회, 2020, 19~21쪽 참조.

지역과 구별되는 그 지역만의 독특성을 지역성의 개념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맥락의 지속적인 지역성 연구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여타의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특성에만 가치를 둔다면 지역성이 협소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역의 정체성이란 다양한 영역 즉 자연물, 기후, 관습, 문화, 산업 등을 기반으로 한 특정 경계 지역 주민의 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동질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영역이 복합적으로 형성하는 동질성은 타 지역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고유성이 될 것이다. 한 지역의 하나의 영역에서 발견되는 특성이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며, 분명 그것이 가치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과 지역의 경계는 때로는 지리적 환경에 의해 때로는 행정편의에 의해 구분되어 왔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변별된 의미 있는 특성을 찾기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영역을 복합적으로 보았을 때, 그 영역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지역의 고유성은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의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역성과 장소성 연구를 토대로 몇 가지 기준을 세워 문학작품 속 공간의 지역성 분석을 실행하고자 한다. 우선, 작품 속에 실재하는 지명의 특성이 서술자나 등장인물에 의해 언급되고 환기된다고 하더라도 작품 밖의 자료와 그 내용을 비교하고 검증하지는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실제 역사적 사실이 언급되거나 실존 인물이 작품 속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작품 밖의 자료를 가져와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언급과 환기가 형성하는 소설 속 공간의 지역성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지역성을 의미 부여의 주체에 의해서 결정되는 장소성의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장소성과 지역성을 대등한 위상에 놓는 것이 아니라 지역성을 장소성보다 더 포괄적인 범주의 용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팀 크레스웰의 주장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누군가에게 그 공간이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면,⁵⁾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 장소성이 된다면, 장소성은 지역성의 중요한 특징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장소성에는 의미 부여의 주체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설 속에서 주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등장인물과 서술자에 의한 장소성을 분석하여 지역성의 한 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지역성을 연구한 연구자들이 중요한 특성으로 보았던 구성원간의 유대감이나 소속감 등 사회적 관계에 의한 공동체성을 공간 구성 요소에 의한 특징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소설 속에서 선택적으로 형성된 섬진강이나 송화강의 공간 구성 요소가 등장인물들이 행동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에 따라 공동체성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리적 자연물, 인공물, 기후, 관습, 사회·경제 문화, 역사 등도 지역성에서 빠뜨릴 수 없는 특징들인데, 문학작품의 공간에서는 작가에 의해 선택적으로 일부분만 구현되고 있다. 이렇듯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작품에 묘사, 설명, 서사로 구현된 공간에서 최대한 그 특징들을 분석해냄으로써 구성 요소에 의한 특징을 지역성의 다른 한 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5) “당신이 어떤 공간에 맨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려 보자. 대학 기숙사 방이 좋은 예이다. 당신은 그 곳의 일정한 바닥 면적과 체적에 혼란스럽다. 그 방에는 침대, 책상, 서랍, 벽장 같은 몇 개의 가장 기본적인 가구만 있을 것이다. 이 가구들은 기숙사의 모든 방마다 똑같다. 방은 특별하지도 않고 당신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중략) 당신의 소유물을 추가하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가구를 재배치하고 벽에 포스터를 붙이고 책상 위에 어떤 목적에 맞게 책을 올려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공간은 장소가 된다. 당신의 장소이다.(중략) 도시 정부는 신축 공공건물이 특별한 장소의 정신을 표출하도록 법률을 제정한다. 국가는 우표, 화폐, 의회 건물, 국립 경기장, 관광 브로슈어 등을 통해 세계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민족 국가 내에서 억압받는 집단은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려고 한다. 새로 이사 온 학생이 벽에 포스터를 붙이기 위해 침대 위로 올라가듯이 코소보 무슬림은 새 깃발을 날리며 기념물을 세우고 지도를 새로 그린다. 그라피티 예술가도 도시의 담벽에 휘갈긴 글씨로 자신의 표식을 남긴다. 이것 역시 그들의 장소이다. 방, 정원, 시내, 도시, 국가, 지구 안에 사람들이 의미 있게 만들어온 공간은 모두 장소가 된다. 즉, 장소란 의미 있는 곳을 말한다.” Tim Cresswell, 앞의 책, 3쪽, 8~9쪽.

2. 마을 공동체성의 섬진강

1) 죽음과 기다림의 장소성

가장 강력하게 섬진강을 의미 있는 장소로 만들고 있는 인물은 기화(봉순)와 송영광이다. 전언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지만 기화는 스스로 섬진강에 몸을 던져 삶을 마감한다.

“머라 카노? 내 말은 그 여자가 죽었다 그 말이다.”

“뭐라구요?”

고개를 들고 강쇠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그것도 물에 빠져 죽었다 카던가? 시체를 건져서 최참판댁으로 옮겨갔다던가?”

“뭐라구요?”

“놀랄 것 없다. 죽는 일은 우리하고 늘 가까운게…… 주막에서 술 묵다 가 귀담아들은 얘기제. 죽은 녀이 지가 놈하고 동행하겼고나 싶었다.”

“기화가 죽었다구요?”

“봉순이 양이가? 유모 딸이라 카던가?”

석이는 별떡 일어섰다.⁶⁾

독립운동을 도모하는 지리산 쌍계사에 모인 인물들 사이에서 기화의 죽음이 우연하게 전해진다. 봉순이는 기생이 되어 기화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릴 적 섬진강 강가에서 길상과 나눈 대화가 봉순이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였다. 봉순은 길상을 마음에 두고 있었으나 길상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친일파 조준구에게 들키지 않고 간도행을 의논하기 위해 나루터로부터 떨어진 강가에서 봉순은 마음먹고 길상의 의중을 떠본

6) 박경리, 『토지』 12권, 마로니에북스, 2012, 41~42쪽.

다. 그런데 “애기씨만 아니라든 중 뿔 몸이제.”⁷⁾라는 길상의 답을 듣고 크게 실망한 봉순이는 이후 간도행에서 이탈하여 진주 명기가 된다.

산간의 강물과 대륙의 강물, 모두 슬한 사연을 흘려보낸 강물. 혜관은 섬진강에 몸을 던진 기화를 생각한다. 십칠팔 년 전에 처음 이곳에 동행하여 왔을 때 법단 남치마에 옥색 두루마기 미색 목도리를 들렀던 아름다운 기생 기화의 모습이 뚜렷하게 강물 위에 떠오른다.

“나무아미타아불, 나무관세음보살.” (중략)

최서희의 일행이 간도로 떠난 후 홀로 남아서 절로 은신해왔었던 꽃다운 처녀 봉순, 절 마당을 왔다갔다 하던 그 자태에 젊은 사미승들은 오뇌의 밤을 보내야 했었고 중년이던 혜관마저 남모르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후 봉순이는 기화가 되었고 노류장화, 그러나 출가한 중에게는 여전히 꺾지 못할 벼랑의 꽃이었다.⁸⁾

위의 인용문을 보면, 간도 해란강에서 하동 섬진강에 몸을 던진 기화를 생각하는 혜관의 회상을 통해 섬진강은 기화에게도 그리고 기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인물들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훗날 기화의 딸 양현은 섬진강을 찾아와 엄마의 냇을 기리기도 한다.

흰빛 보랏빛의 과꽃을 예쁘게 묶은 꽃다발을 여자는 들고 있었다. 천천히 물가까지 간 그는 무슨 말인지 증얼거리는 것 같았다. 아니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강물을 향해 꽃다발을 휘! 던지고 다시 누군가를 애절하게 부르는 것 같은 음성이 들렸다. 이상한 그 행동은 어떤 무속적 의미를 담은 의식같이 느껴졌다. 한밤에 소지를 사르며 천지신명에게 소망을 고하는 소복의 여인과도 같은 엄숙하고 신비스러우며 절실한 염원을 느끼게 하는 모습, 어느덧 여자는 망부석이 된 듯 움직

7) 박경리, 『토지』 4권, 마로니에북스, 2012, 411~413쪽.

8) 박경리, 『토지』 12권, 마로니에북스, 2012, 110쪽.

이지 않았고 말도 없었다.⁹⁾

위의 인용문을 보면, 양현의 행동은 누군가에게 목격된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 장면은 『토지』의 “제5부 1편 3장 섬진강 기슭에서”라는 장에서 송영광이 의도치 않게 양현을 훔쳐보게 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작가는 특별하게 “섬진강 기슭에서”라는 장을 구성하고 이 두 인물이 만나는 의미 심장한 사건을 배치한 것이다.

송영광은 조금 전 아버지 송관수의 유골을 섬진강 강물에 뿌리고 혼자 남아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 있던 중이었다. 백정의 사위로 천대를 받았으나 독립운동에 동참하며 전국을 떠돌고 만주까지 이르렀던 송관수는 목단강 방면에서 호열자로 목숨을 잃었다. 영광은 그런 아버지의 유해를 모시고 조선으로 돌아와 지리산 도솔암에서 가족, 지인들과 함께 장례를 치른다. 그리고는 작은 배에 올라 소지감의 독경 소리를 들으며 송관수의 사위인 강휘와 함께 아버지의 유골을 섬진강에 뿌린다.

벧전에 부딪쳐오는 물살, 영광은 갑자기 아버지가 이 강을 얼마나 많이 오르내렸을까 하고 생각했다. 동학란에 죽었다는 친할아버지는 또 얼마나 이 나룻배를 탔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유해를 안고서 왜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다.(중략)

망자의 아들과 사위가 유골을 강물에 뿌리기 시작했다. 휘는 굳은 침묵으로 그 일을 행하였고 영광은 아이처럼 흐느끼며 아버지를 불렀다. 그 일이 다 끝났을 때 휘는 먼 산을 바라보았으며 영광은 배 바닥에 엎드려 배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강물은 무심히 흐르고 하늘의 실구름도 무심히 흘러가고 있었다.¹⁰⁾

9) 박경리, 『토지』 16권, 마로니에북스, 2012, 209쪽.

10) 위의 책, 171쪽, 201쪽.

송영광이 아버지만이 아니라 친할아버지까지 수없이 오르내렸을 이곳 섬진강을 떠올린 것은 송관수를 이곳에서 최종적으로 잠들게 하는 이유가 된다. 앞서 기화가 고향을 떠나 기생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병든 몸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고통스러워하던 중 어릴 적 놀던 섬진강에 몸을 던짐으로써 우여곡절의 삶에 종지부를 찍은 것처럼, 독립운동을 펼치기도 하였으나 만주를 떠돌다 병들어 쓸쓸히 눈을 감아야 했던 송관수 역시 정든 섬진강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으로 삶을 끝나는 것으로 여겨지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섬진강은 단순히 생명이 끝나는 곳이 아니라 다난했던 삶의 고행을 멈추고 안식에 이르도록 하는 장소이다.

그런데 이 “섬진강 기슭에서”라는 장이 특별한 것은 기생 기화와 백정 송관수의 안식만이 아니라 기화의 딸 양현과 관수의 아들 영광이 이곳에서의 우연한 마주침으로 중국에는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

여자는 몸을 굽히며 앉았다. 엎드려서 두 손에 물을 건어올리며 얼굴을 씻는다. 아마 그는 울었던 모양이다. 꽤 오랜 시간 얼굴을 씻은 뒤 머리를 묶은 손수건을 풀었다. 소담스런 머리칼이 양어깨 위에 물결치듯 흔들렸다. 얼굴을 닦고 일어난 그는 손수건을 펴서 비쳐보고 두세 번 털더니 다시 접어서 흩어진 머리를 모아 묶는다. 영광의 가슴은 방망이질하듯 뛰었다. 이제는 현장을 들키는 순서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본의는 아니었지만 남의 은밀한 행동을 지켜보게 된 무례한 사내로서, 어느덧 영광은 가해자 입장이 되어 있었다.¹¹⁾

위의 인용문을 보면, 섬진강 강가에서 행하는 양현의 움직임은 죽은 엄마의 넋을 기리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영광에게 잊지 못할 인상적인 행위가 되고 있다. 작가는 이 장소를 누군가에게

11) 위의 책, 209쪽.

는 이야기가 끝나는 곳으로,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세대교체와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장소가 되도록 하고 있다. 양현과 영광은 이날 이곳에서의 만남을 잊지 않았고, 섬진강은 두 인물에게 슬픔을 위로 받은 곳이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곳으로 기억된다.

이와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을 지니는 섬진강의 장소성을 두만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토지』 “제1부 3편 4장 나루터”에서는 섬진강의 나루터에서 두만네의 큰 딸 선이가 ‘신행(新行)’을 떠나는 장면을 중요하게 다룬다.

나룻배 위에는 이미 가마 한 틀이 올려져 있었고 말을 탄 신랑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신랑은 농작이랑 함이랑 예단 등우리를 배 위에 실어올리는 것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두만네의 선이가 신행 가는 길이었던 것이다. 뱃사공은 신이 나서 큰소리로 물건 놓을 자리를 지시하고 있었으며 진술 의복에 미투리에 갓을 쓴 두만아버는 성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서 있었으며 두만이 영만 이도 누님 신행길에 동행하는가 새 옷으로 차려입고 부러워서 모여드는 조무래기들을 향해 병긱병긱 웃고 있었다. 마을 아낙들에게 둘러싸인 두만네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신부 맘씨가 착한계로 동지선달, 이 칙운 날이 눈 녹는 봄날맨치로, 참 날씨도 좋소.”

신랑도 들어보란 듯이 막팔네가 큰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중략)

두만네는 눈물을 닦으면서도 비죽이 웃는다.¹²⁾

버스정류장이나 기차역이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 창작물에서 빈번하게 이별의 장소가 되는 것처럼 섬진강 평사리의 나루터도 이러한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이곳 나루터의 광경이 여느 장소와 다른 것은 이별을 맞는 당사자들

12) 박경리, 『토지』 2권, 마로니에북스, 2012, 334쪽.

만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점이다. 신랑이 탄 말이나 가마, 농작을 배에 올리는 시대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 외에도 나루터를 이용하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며 기쁜 일에는 축복을 슬픈 일에는 위로를 해주면서 연대감을 드러내는 장면이 등장한다.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더라도 이 나루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깝거나 먼 곳에서 바라보며 궁금해 하고 지켜보고, 반가워하며, 때로는 배삯을 대신 내주기도 하는 등 마을 공동체성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나루터이다.

두만네는 이렇게 딸을 보내고 이후에는 아들도 도시로 보내는데, 이때에도 섬진강 평사리의 나루터에서 눈물을 닦는 두만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이렇듯 자녀들의 성장으로 인한 부모 자식 간의 슬프고도 기쁜 이별이 생생하게 그려지는 인물은 두만이 가족뿐이다.¹³⁾

두만이를 서울로 가는 목수 윤보와 동행하게 하는 것은 아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딸이 결혼하여 출가를 하고 아들이 농사를 짓는 부모와는 다른 직업을 갖기 위해 도시로 떠나는 과정에서 섬진강 평사리 나루터는 희망을 담은 가족 간의 이별의 장소가 되고

13) 박경리, 『토지』 4권, 마로니에북스, 2012, 90~91쪽. 두만이와 두만네의 이별 장면은 다음과 같다.

윤보와 두만이 그리고 윗마을 농부는 나룻배에 올랐다. 윤보는 연장망태를 배 바닥에 내려놓고 곱방대와 담배쌈지를 꺼낸다.

두만이는 짐을 든 채 뱃전에 서서 어미와 동생을 바라보고 사공은 작대기로 바위를 밀어 강심 쪽으로 배의 방향을 잡는다. (중략)

“두만아!”

“오매! 자, 잘 있소요!”

배는 멀어진다.

“아재씨 말 잘 들어라! 두만아!”

치맛자락을 끌어올리며 눈물을 닦는 두만네의 모습은 차츰 작아 보인다. 바람이 없는 아침 강물은 깊이 잠들었다가 미소하며 깨어난 아기 얼굴처럼 맑고 순해 보였다.

대숲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없고 물오리들이 아침 목욕을 하고 있었으며 들려오는 것은 노 젓는 소리뿐이다. (중략) 울먹이다가 산마루에 가려져 강가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두만이는 흐느껴 울었다.

있다. 이렇듯 양현이나 영광의 경우와 더불어 두만 가족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의 이별이 지나는 의미를 섬진강 평사리 나루터에 반복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토지』에서 섬진강은 마을 공동체적 특성과 함께 작게는 가족 공동체적 장소성을 지니게 된다.

섬진강의 평사리 나루터와는 달리 화개 나루터는 화개 장터를 오가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나루터인데, 특히 『토지』에서 일편단심 사랑을 굽히지 않는 인물 월선에게 이곳은 연인을 기다리는 장소이다. 화개 장터에서 주막집을 하고 있는 월선은 나루터에 나가 이제나 저제나 오지 않는 용이를 기다린다.

 쓸쓸한 파장자리를 질러서 월선은 나루터에 이르렀다. 장배 나무 배는 이미 떠나고 방금 나룻배는 물을 떠나고 있었다. 마지막 배임이 틀림없다.

 ‘안 오는구마. 그만 오늘은 안 오고 마는구나!’

 물끄러미 강 너머 산을 바라본다. 장날이면 장날마다 반드시 용이와 주었던 것은 아니었다.¹⁴⁾

 이제는 아무리 기다려보아도 장배나 뗏목배가 올 리가 없다. 나룻배는 저만큼 나루터에 매어진 채, 어둠이 오고 있는 것이다.(중략) 월선은 어느 골짜기에 용이도 이와 같이 남은 목숨을 굴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¹⁵⁾

본처가 아니기에 몇몇하게 만날 수 없는 처지의 월선은 용이와 뚜렷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하염없이 나루터에 나가 그를 기다린다. 때로는 배가 끊어진 저녁 방천가에서 흐르는 섬진강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앉아 있는 모습이 윤보에게 발견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

14) 박경리, 『토지』 3권, 마로니에박스, 2012, 324쪽.

15) 박경리, 『토지』 4권, 마로니에박스, 2012, 382~383쪽.

림 중에는 단순히 월선 자신을 잊지 않았기를 바라는 외로운 기다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참판가에서 친일파 조준구를 몰아내지 못한 채 지리산으로 들어가 의병활동을 하는 용이 때문에, 의병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릴 때마다 월선은 용이의 신병을 걱정하며 나루터에 나와 기다린다. 숨어 활동하는 의병이 된 용이가 나룻배를 타고 읍내로 돌아올 수는 없는 형편인데도 화개 나루터에 나오는 그의 행동은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라기보다 소식에 대한 기다림으로 보인다. 화개장터가 있는 화개 나루터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곳이어서 다른 곳에서는 알기 힘든 소식들도 이곳에서는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월선의 이와 같은 행동도 결국 용이의 아들을 키우고 가족처럼 지내게 되는 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가족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섬진강 화개 나루터의 장소성이라고 할 수 있다.

등장인물에 의한 장소성과 더불어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서술자에 의한 장소성이다. 작품 내적 화자는 작품의 등장인물인 경우가 많지만, 『토지』의 특징 중 하나는 어떤 등장인물과도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서술자가 자주 나타난다는 점이다. 『토지』의 이 서술자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작품에서 발견되는 서술자와 달리 제한적인 앎을 보이는데, 공간과 관련하여서는 종종 실재하는 공간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다. 이 서술자가 섬진강을 의미 있는 장소로 언급한 사건은 동학농민혁명이다.

동학당의 무리는 (중략) 오히려 격렬하게 파괴하였으며 관아를 습격하여 상하 관원, 토호, 관에 빌붙은 향반들을 살해하고 군물을 탈취하는 등 읍내까지 휩쓸고 내려가는 동안 상당한 인명을 살상하였다. 섬진강 강가 송림의 흰 모래가 선혈로써 붉게 물들었다고들 했다.¹⁶⁾

16) 박경리, 『토지』 2권, 마로니에북스, 2012, 80쪽.

박경리는 실존인물 동학장수 김개남을 모델로 김개주를 창작하였다고 말한 바 있는데, 창작인물 김개주가 보여주는 『토지』에서의 행동은 김개남의 행적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김개주는 “동학당의 무리”들과 함께 최참판댁에 들어가 과거 천은사에서 윤씨부인을 겁탈하여 낳은 아들이 “헌헌장부가 되었”음을 알리고 조용히 빠져나온다. 그리고 직후 위의 인용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섬진강 강가 송림의 흰 모래가” 붉게 물들 정도로 수많은 죽음을 봄으로써 섬진강과 역사적인 사건을 이어 놓는다.

여인을 사모하였으나 겁탈로써 아들이 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죽고자 하였던 윤씨부인 대신 아들을 지켜온 김개주는 윤씨부인을 찾아가 소식을 전하는 행동을 한 것인데, 서술자는 이 상황에 덧붙여서 역사적인 한 장면을 환기하고 있다. 낳았으나 기르지 못한 아들의 성장을 알게 된 것은 이후 윤씨부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아들이 윤씨부인을 찾아왔을 때 최참판댁 머슴으로서 살게 하고 훗날 별당아씨와의 야반도주를 돕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개주가 윤씨부인을 찾아가는 행동은 서사의 전략으로 설정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김개주는 동학장수이므로 위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그의 면모를 강렬하게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는 1897년 한가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윤씨부인과 김개주의 아들 김환은 신분을 감춘 채 구천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최참판댁 하인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의 장면은 그 이전 어느 때에 벌어진 일이다. 한창 동학농민혁명 중이었던 때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고, 1895년 동학농민혁명이 실패하면서 쫓겨 후퇴하던 중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 실존인물 김개남은 하동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았으나, 그의 오른팔 김인배 대접주가 하동에서 활약하였다고 한다. 『토지』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언급되고 있지 않으며, 그 역사적 사건에서 서술자에 의해 강조는 것은 수많은 죽음이다. 그리고 그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섬진강 강가이다.

2) 서민적 공감과 소식 통로의 공간

『토지』에는 여러 지역에서 강이 등장하는데, 일상생활의 교통로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강은 하동의 섬진강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동의 섬진강은 『토지』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평사리 시골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통로이다. 물론 육로의 길이 있기는 하지만, 자주 왕래해야 하는 하동읍까지 빠르게 가고 올 수 있는 나룻배는 긴요한 생활수단이다. 특히 평사리와 같은 시골 마을에서 멀리 도시로 나갈 때에는 대부분 배를 이용하여 읍내로 나간 후 기차를 이용한다. 이와는 달리 간도의 해란강, 만주의 송화강, 그리고 국경의 두만강과 진주 남강 등은 『토지』에서 교통로로서의 역할이 아주 미약하다.

『토지』에는 섬진강을 따라 평사리와 화심리, 그리고 화개의 나루터가 등장한다. 마을이나 지리산 등 각기 다른 곳에서 나루터로 이동하여 배에 오른 인물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소식을 공유한다. 제2부 “3편 2장 나룻배”에서는 그 특징이 단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게 두만애비 진주로 이사 갔다믄?”

“갔제.”

“살림이 따실 근데 와 동네를 뺏는고?”

“다 떠날 만한 까닭이 있인께로.”

옆에 앉은 농부에게 담배 한 대를 얻어서 피워 문 봉기는 말을 잇는다.

“이평이 그자가 동네를 뜯 첫째 까닭은 아들놈을 잘 둔 때문이고 둘째 까닭은 자네도 알다시피 간난할때 제우답으로 얻은 금싸래기 걷은 논 다섯 마지기를 뺏긴 때문이고 셋째 까닭은 두만어매가 순사한테 뺨을 맞은 때문이제.”

“아따, 돌박에 술씨 나기를 기다리지. 성급한 사람, 왔다갔다 하다가 종을 못 잡겠네. 무신 놈의 까닭이 그리 길고 꼬여 있노. 한마디로 잘돼

서 갔다는 기가 못돼서 갔다는 기가.”
“못되기도 하고 잘되기도 하고 반반이라.”
“이팽이떡네가 순사한테 뺨은 와 맞았는고?”¹⁷⁾

위의 인용문처럼 나룻배 위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해 인물들의 현재 상황이나 그간의 변화를 알 수 있다. 그 동안 잠시 주요 서사에 밀려났던 등장인물이 작품에 다시 등장하는 방법으로도 나룻배에서의 대화가 활용된다. 이들의 대화만으로 독자가 알 수 없는 부분은 서술자에 의해 다시 진술됨으로써 서사의 빈자리는 채워진다. 살인 죄인의 아들로 마을을 떠났던 한복이가 평사리로 돌아와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나 두만이의 부모에게 일어난 사건은 나룻배에서의 대화를 기점으로 풍성한 이야기로 살아난다.

알던 사이든 낯선 사이든 나룻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일시적이거나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 늘 나룻배를 탄 인물들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그마저도 동병상련의 의식 속에 놓여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호열자가 돌아 죽음이 난무할 때 가족을 잃고 나룻배 위에서 흐느껴 울던 ‘술 취한 장돌뱅이 풍의 사나이’에게 아무도 말을 건네지 않았던 것은 봉기나 용이, 영팔이 등도 역시 같은 슬픔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섬진강 위 나룻배에서만이 아니라 강가에서도 소식은 빠르게 나누어지며 전해진다.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조선의 독립’이 전해지는 곳도 바로 섬진강 강가이다.

어중잡고 나오기는 했는데 고기 잡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다. 늘 낚시질을 하던 노인의 모습도 볼 수 없었다. 양현은 무턱대고 기다릴 생각을 하며 강가 모래밭에 다리를 뻗고 앉았다.(중략)

17) 박경리, 『토지』 6권, 마로니에북스, 2012, 211~212쪽.

강 건너 산으로 시선을 보낸다. 산은 청정하고 싱그러웠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강물은 아랑곳없이 흐르고 있었다.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나갔을까. 독길에서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중 한 사람이 앞서가며,

“일본이 항복했소!”

하고 외쳤다. 뒤쫓아가는 사람들이,

“정말이오!”

“어디서 들었소!”

“이자 우리는 독립하는 거요!”

각기 소리를 질러댔다. 양현은 모래를 차고 일어섰다. 그리고 달렸다. 숨차게 달렸다.

“스님 그제 정말입니까!”

먹물 장삼의 너풀거리는 소매를 거머잡으며 양현은 꿈길같이 물었다.

“라디오에서 천황이 방송을 했소이다.”

양현은 발길을 돌렸다. 집을 향해 달린다.¹⁸⁾

이렇게 강둑에서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들은 양현은 집을 향해 달려가 서희에게 일본이 항복하고 조선이 독립하였음을 소리쳐 알린다. 이 소식은 서희로 하여금 “자신을 휘감은 쇠사슬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¹⁹⁾

『토지』의 서사가 시작될 때 평사리의 섬진강 독길은 한겨울 “아이들이 연을 올리고” 달려가면서 노는 곳이었다. “바람이 구름을 다 날려버린 맑고 푸른 하늘에 하얀 소연(素鸞)이 둥둥 떠서 올라”가면 “사금파리 가루에 송진을 먹여서 철사같이 질긴 연줄이 풀려나가는 소리, 바람 소리, 물살이 이는 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의 눈은 흰 연을 따라 떠날 줄 모”르며 몰려다니며 논다.²⁰⁾ 사람들이 평화로이 오고가며 때로는 북적거리기도 하는 곳,

18) 박경리, 『토지』 20권, 마로니에북스, 2012, 414쪽.

19) 위의 책, 415쪽.

이 섬진강 독길 열린 공간에서 등장인물 대부분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조선의 독립이라는 중요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토지』의 서사가 마무리된다.

“희번덕이는 섬진강 저편은 전라도 땅, 이편은 경상도 땅, 너그럽게 그어진 능선은 확실한 윤곽을 드러낸다.”²¹⁾ 이렇듯 서술자에 의해 종종 섬진강은 실재하는 지명임을 환기하게 된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흐르는 섬진강은 하동 어디쯤 강가에 송림이 있고, 그로 인해 “섬진강 백사장의 솔내음 실은 바람”을 기억하는 인물이 있다.²²⁾ 강의 폭은 넓지 않아 강 건너 저편의 산이 가깝게 보인다. 강은 늘 산과 함께 보인다. 마을 곳곳에서 강이 느껴지는 이유는 당산 누각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이는 강줄기가 구불구불 곳곳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이 보일 때 그 아래 흐르는 강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섬진강은 강을 따라 가깝게 읍내로 가는 길이 나 있어서 나루터에서 일어나는 일을 길에서도 알아볼 수 있고, 반대로 그 길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룻배에서도 볼 수 있다. 선이의 신행 가는 나루터 광경을 말을 타고 가던 문의원이 보았고, 간난할매의 꽃상여 길을 강물 위의 뗏목에서 뗏목꾼이 보았다.

평사리에서 강을 따라 삼십 리가 넘는 읍내 길을 달구지가 가고 나무꾼이 간다. 나무꾼과 농부는 뒤에서 들리는 말발굽 소리에 돌아보다가 얼른 길옆으로 비켜서며 마상에 앉은 최치수에게 인사를 했다. 쏘는 듯한 치수의 눈은 어름어름 피하면서.

강 위에는 화개장을 향해 장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우중충하게 질푸른 강물에 하늘이 나직이 내려오고 투박한 잿빛 구름은 약한 빛을 던져주는 해를 가리려 하고 있었다.²³⁾

20) 박경리, 『토지』 2권, 마로니에북스, 2012, 263쪽.

21) 박경리, 『토지』 1권, 마로니에북스, 2012, 32쪽.

22) 박경리, 『토지』 3권, 마로니에북스, 2012, 269쪽.

강을 따라 삼십 리가 넘는 읍내 길은 뱃삿이 없거나 뱃길이 끊어졌을 때에도 이용하지만, 나무꾼이나 농부가 일상에서 배를 탈 필요가 없을 때에도 이용하고, 위의 인용문처럼 급할 것 없는 양반이 말을 타고 유유자적 길을 갈 때 주로 이용한다.

『토지』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기 전 최참판가의 양반 윤씨부인이나 최치수와 서희가 섬진강 강가를 거닐거나 나룻배를 타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후반부에 윤국이가 양현과 함께 나룻배를 타는 장면이 나오는데, 윤국이 나루터에서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당황하며 나이 어린 윤국에게 엉거주춤 허리를 굽히는 장면도 당대 신분의식의 일면을 보여준다.

나룻배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둘 있었다. 성환할매 사위 귀남아비와 마당쇠댁네, 그러니까 천일네였다. 그들은 윤국을 보자 엉거주춤 허리를 굽혔다.

“아주머니, 읍내 나가십니까.”

천일네 역시 아주머니라는 말이 황송하고 낯설어서 얼굴이 굳어진다.

“예.”

“부탁이 있는데, 이 편지 좀 부쳐주시겠습니까.”

“그, 그렇기 하겠합니다.”

윤국은 우표 값으로 오 전짜리 주화 하나를 편지와 함께 내밀었다.

“우, 우편국에 가문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표 붙여서 내면 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윤국은 등을 돌려 모래밭을 걸어간다.

“우짜든 저렇기도 준수하꼬.”

“부잣집에다 양반인게 와 안 그렇겠소.”

귀남아비가 붕어 숨 쉬듯 턱을 내렸다 올렸다 하며 말했다.²³⁾

23) 박경리, 『토지』 1권, 마로니에북스, 2012, 55쪽.

24) 박경리, 『토지』 14권, 마로니에북스, 2012, 150~152쪽.

앞의 두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섬진강 나루터는 주로 서민이 이용하는 곳으로 설정되어 『토지』의 섬진강은 서민성이 두드러져 보인다. 대부분의 양반들은 주로 멀리 섬진강을 바라보기만 하는 반면, 서민들은 용이와 흥이처럼 강물에 몸을 담그기도 하고 모래사장을 거닐기도 하며 강둑에 앉아 있기도 하고, 나룻배나 뗏목을 타는 것이 일상이다. 그래서 『토지』 마지막 5부에 서희가 나룻배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은 유난히 도드라져 보인다. 드높던 양반의 권위와 권세가 꺾이고 도망치듯이 간도로 떠났다가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서희에게 섬진강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서민과 늘 함께였던 섬진강에 서희 역시 몸을 맡길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3. 민족 공동체성의 송화강

1) 역사와 민족의식의 장소성

『토지』에서 송화강은 감히 개인적인 장소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듯이 민족적인 의미를 강렬하게 부여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작품 속에서 가장 많이 송화강을 찾아가는 송영광조차 그 강에 개인적인 의미를 만들지 않는다.

가장 먼저 송화강은 실존인물 독립운동가 최재형의 말 속에서 등장한다.

간혹 아들의 공부를 돌보아준대서 그랬던지 최재형은 늘 이동진을 이 선생이라 불렀다. 나이로는 그가 일곱 살 위인 오래 마흔 여섯이었다.

“어윤중 그 양반 야까운 분이였소. 이십 년이 넘었구면, 서북경략사로 있을 때 말이오. 그때 청나라 정부에서 도문강 동북에 있는 조선사람들을 쫓아내려 했었거든.(중략) 김우식을 시켜서 백두산을 탐색하게

하고 정계비를 찾았는데 정계비가 있는 곳은 도문강이 아니요 토문강이었던 말이에요. 그 강은 북쪽으로 흘러서 송화강으로 빠지거든, 그러니 청나라 사람들 말문이 막혀버린 게요.”²⁵⁾

하동 이부사택의 이동진은 러시아령으로 이동하여 독립운동을 도모하는데, 양반으로서 조선에서조차 제대로 독립운동을 해보지도 않았던 그는 초창기에 실의에 빠진다. 『토지』에서 창작인물인 그를 도운 건 실존인물인 최재형으로 설정되어 있다. 물론 작품 속에서 그들은 모두 허구적 인물이다. 실제로 러시아 귀화인 최재형은 “자신이 가진 재산과 지위,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연해주의 동포를 보살피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²⁶⁾하는데, 『토지』의 창작인물 이동진 또한 그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최재형이 말하고 있는 백두산정계비의 내용 중 송화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두만강이 국경선이라는 청나라의 주장과 달리 송화강의 지류 토문강이 정확한 국경선이기 때문이다. 이 내용은 『토지』 후반부 서술자에 의해서 더욱 상세하게 진술된다. 경성의 지식인들이 수다스럽게 간도와 만주의 정세를 주고받으며 논쟁을 펼치고 있는 중에 서술자가 개입하여 이와 관련한 상당량의 정보를 방출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조선의 동북경략사(東北經略使)였던 어윤중(魚允中)이 종성(鐘城) 사람, 김우식(金寓軾)으로 하여금 백두산을 답사하게 하고 정계비(定界碑)와 토문강(土門江)의 원류를 규명하게 한 것이 이 무렵이다. 그리하여 토문(土門)과 도문(圖們)은 별개의 것으로서, 정계비에 찍어진 토문강은 북류하여 송화강(松花江)에 이르는 것이므로 철수해야 할 조선 유민은 토문강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한할 것이며 도문강 밖의 유민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조선은 청에도 제기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25) 박경리, 『토지』 3권, 마로니에북스, 2012, 272쪽.

26) 이승윤, 『10개의 공간을 따라 읽는 소설 토지』, 도서출판엘피, 2021, 203쪽.

국경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1885년 두 나라는, 청의 가원계(賈元桂)·진영(秦瑛), 조선의 이중하(李重夏)·조창식(趙昌植)이 마주 앉아 담판을 벌이게 되었다. (중략) 이차 삼차로, 담판은 속개되어 청은 협박으로 밀고 나왔으나 이중하는 내 목을 찢으면 찢지 국경을 좁힐 수는 없다 하여 강경히 맞섰던 것이다. 간도 내에 거주하는 유민 중 조선인이 십만이요 청인이 삼만, 십 대 삼이었지만 그간 대국의 세를 믿고 청인의 꺾박을 조선 백성은 견어야 했고 그 고초는 오죽했겠는가. 끊임없이 변발과 복색의 변경을 강요당하며 그러지 아니할 때 땅을 몰수당하는 등, 군과 경찰이 그들 수중에 있는 만큼 소수 청인들의 횡포는 격심했을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빗발 같은 간도 유민들의 보호요청을 받은 조선 정부는 이범윤(李範允)을 시찰원으로 파견하였고 이범윤은 동포들의 참상을 보고 정부의 허가를 무시한 채 사포대(私砲隊)를 조직하여 청에 대항했다. 이범윤은 노일전쟁 때 러시아에 가담했는데 그것은 북청사변(北淸事變) 때, 러시아가 진주했을 때 청의 질곡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곳 백성들 경향에 따라 한 짓이며 그 역시 러시아의 힘을 빌어 청을 밀어내려는 일말의 희망 때문이었을 것이다. 러시아가 패전하게 되자 이범윤은 노령으로 잠적했던 것이다. 간도의 사정은 대강 이상으로 설명이 되었는데 그러면 만보산사건은 어떤 것이었는가.²⁷⁾

“간도의 사정은 대강 이상으로 설명이 되었는데, 그러면 만보산사건은 어떤 것이었는가.” 다음 문장부터는 만보산사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사실, 서술자가 너무 작품 표면에 노골적으로 나타나 장광의 역사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독자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토지』 4부에서 5부는 이러한 서술 방식이 빈번하여 아예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작가는 일제 강점기 간도협약으로 중국으로 넘어간 국토였기에 더욱 간절하게 이곳의 역사를 설명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안타까운 마

27) 박경리, 『토지』 15권, 마로니에북스, 2012, 167~169쪽.

음은 간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상의학교 교사 송장환의 발언을 통해서 잘 나타나 있다.

“그러면 다음 이쪽을 보십시오. 우리 조선땅과 아라사, 그리고 청국, 이 세 나라의 국경이 모여 있는 이곳은 연해주로 넘어가는 길목인데 여기 훈춘 방면에서 보기로 합시다. 훈춘에서 북쪽으로 사뭇 올라가면 송화강(松花江)” (중략)

안시성과 요동성 밖에 있는 요하(遼河)를 따라 백목이 힘찬 줄을 그어나간다. 부여성 외곽으로 해서 하얼빈까지 왔을 때 백목이 부러졌다. 나머지 짙어진 백목이 송화강을 따라 시베리아로 쪽 빠져나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압록강 두만강 밖에 있는 이 땅덩어리의 크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잃어버린 강토, 조선의 땅덩어리만 하다고 여러분은 생각지 않습니까?²⁸⁾

송장환은 주권과 영토를 빼앗긴 일제 치하의 울분을 섞어 ‘고구려 적에는 우리 영토’였던 광활한 땅덩어리를 칠판에 그려 보이며 애들러서 민족이 단합하여 독립운동을 펼쳐야 함을 가르친다. “동족이 상쟁하여 나라가 망하는 일”, “제 민족이 제 나라를 팔아먹는 그것”이야말로 처참한 것임을 강조한다. 신경에서 송영광이 송화강 강가를 거닐며 펼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은 송영광의 것이라기보다 송장환의 것이라고 해야 더욱 어울려 보이는데, 정작 송장환은 송화강에 나타나지 않는다.

백두산 천지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강물은 만주땅 광활한 들판 거반을 적신다. 하얼빈을 지나 멀리멀리 우수리강과 합류, 노령 하바로프스크까지, 송화강은 가히 만주의 젖줄이며 대지의 생명선,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다. 땅문서가 없었던 땅, 땅임자도 없었던 땅, 흑룡강 우수리강에는 어

28) 박경리, 『토지』 5권, 마로니에북스, 2012, 157쪽.

족(魚族)이 지천이며 사계절 유목과 수렵, 나무열매의 채집으로 굳이 땅을 일구지 않아도 넉넉했던 삶의 터전, 기름진 망망대륙인 만주땅, 대궁(大弓)을 사용했었다는 동이족(東夷族)이 송화강 따라, 우수리강 흑룡강을 건너 시베리아 별판인들 아니 넘나들었다고 어찌 단언하리.²⁹⁾

인용문처럼 송화강은 조선인에게 엄중한 민족적인 의미를 지니기에 개인적인 의미부여를 하는 조선인 등장인물이 없다. 이러한 특징은 일본인 오가타 지로에게 송화강이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가 되면서 대비됨으로써 송화강에 부여된 민족주의적인 공동체성이 더욱 강렬하게 부각된다. 『토지』 제5부 “2편 2장 송화강의 봄”은 바로 이 일본인 오가타 지로와 유인실의 슬픈 화해로 구성되어 있다.

하얼빈이라면 수도 없이 와본 곳이다. 예전에도 여러 번 왔었지만 송화강 강가에서 애절하게 인실과 헤어진 후 해마다, 어떤 때는 두세 번이나 찾곤 했던 것이다.³⁰⁾

자신은 코즈모폴리탄이라고 주장하는 오가타 지로이지만, 독립운동을 하고자 하는 지식인 여성 유인실에게 그는 분명 일본인이다. 그를 사랑하여 낳게 된 아들을 몰래 동경의 조찬하에게 맡기고 도망치듯이 만주로 떠나 거의 숨어 지내던 유인실은 결국 오가타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송화강 강가에서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한다.

약속한 시간에 인실은 송화강 강변 광장에 나타났다. (중략) 강변의 산책길은 세 갈래로 뻗어 있었다. 따라서 길과 길 사이의 가로수도 세 줄로 뻗어 있었으며 군데군데 벤치가 놓여 있었다. 인실은 강쪽의 길로 접

29) 박경리, 『토지』 16권, 마로니에북스, 2012, 85쪽.

30) 박경리, 『토지』 19권, 마로니에북스, 2012, 216쪽.

어 들었다. 오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길은 한적한 편이었다. 저만큼 벤치에 웅크리듯 앉은 오가타가 다가가는 인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인실은 코트 주머니 속에 두 손을 찌른 채 오가타 옆에 가서 앉았다. (중략)

인실은 간략하게 그때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오가타의 얼굴은 붉으락푸르락 입이 붙어서 말도 못하는 상태였으나 그는 별떡 일어섰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인실의 뺨을 때렸다.

“다, 당신에게 내 자식을 버릴 권리는 없어!”

(중략) 그는 급히 강가로 뛰어가서 인실에게 뒷모습을 보이며 미동도 않고 서 있었다. 그는 깊은 자괴심에 빠졌다. 인실이 원했던 원치 않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와 고통을 함께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³¹⁾

자신이 친아버지인지도 모르는, 벌써 열한 살이 된 아들 쇼지와 함께 다시 하얼빈을 찾아온 오가타 지로는 이날의 일을 잊지 않았고, 그에게 송화강은 유인실의 고백이 있었던 그리하여 아들을 찾게 된 중요한 곳으로 각인되었다. 유인실의 입장에서도 이곳이 잊지 못할 장소일 법한데, 『토지』에서 그러한 점은 일면도 찾아볼 수 없다. 『토지』에서 송화강은 조선인에게만큼은 늘 민족의식을 동반하여 등장한다.

2) 개별적 상상과 이국적 도시의 공간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송화강은 중요한 고백이 이루어진 장소이기는 했으나, 『토지』에서 이곳이 반복적으로 고백의 장소로 이용되지는 않는다. 『토지』에서 정처 없이, 목적 없이 곳곳을 다니는 대표적인 인물이 송영광과 오가타 지로인데, 이들만이 송화강 강변을 거닌다. 영광은 먼저 길림에서 송화강을 만난다.

31) 박경리, 『토지』 17권, 마로니에북스, 2012, 173~184쪽.

길림은 조용하고 은은한 도시였다. 마치 여기저기 청태(靑苔) 낀 바위들이 흩어져 있는 듯, 그러나 암울하고 음습하지는 않았다. 비 오신 뒤 햇빛 받는 순간처럼 싱그러웠다. 아마 송화강과 곳곳에 늘어진 버들의 그 영롱한 푸름 때문이 아닐까. (중략) 길림은 신경에 비하여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와 유곽문화의 침투가 적은 것 같이 보였다. 영광은 송화강 강가에까지 갔다. 강은 도시를 휘감으며 흐르고 있었다. 그야말로 길림은 수향(水鄉)이다.³²⁾

길림에 처음 도착한 영광은 길림의 인상적인 모습이 “아마 송화강과 곳곳에 늘어진 버들의 그 영롱한 푸름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그 정도로 길림은 ‘수향(水鄉)’의 기운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길림은 송화강 중류에 위치하여 몽골어로 강변이라는 뜻의 ‘지린우라[吉林烏拉]’로³³⁾ 불렸다고 한다.

기본 적 없는 길림에 대하여 작가는 정보를 수집했을 것이고, 그에 어울리는 설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박경리는 집필을 할 때 여러 사전과 지도를 옆에 두고 창작을 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경리는 『토지』 4부 연재를 끝낸 후 하얼빈의 송화강에 가볼 수 있었다. 영광이 하얼빈의 송화강에서 그 정경이 길림의 송화강과 다르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작가가 상상했던 송화강과 직접 본 송화강이 달랐기 때문이다.³⁴⁾

중요한 것은 이처럼 작가가 오랜 시간을 두고 송화강을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인지 『토지』에서는 송화강과 함께 일상생활을 보내는 주요 인물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강가에서 장사를 하거나, 낚시를 하는 몇몇 사람

32) 박경리, 『토지』 16권, 마로니에북스, 2012, 84~85쪽.

3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4169&cid=40942&categoryId=40012>(검색일: 2021.09.17.)

34) 박경리, 『만리장성의 나라』, 나남출판사, 2003.

들이 배경처럼 보인다. 하지만 『토지』에 주요 등장인물은 송화강을 그제 바라보고나 강가를 걷을 뿐이다. 길림에서나 하얼빈에서나 마찬가지이다.

“곧장 송화강을 향해 걷는다. 강가에 앉은 영광은 담배를 꺼내서 불여 문다. 어제도 이곳에 와서 한참 앉아 있다가 돌아갔다.”³⁵⁾

“강바람이나 쐬고 여관으로 가겠습니다.”

길 위에서 두 사람은 헤어졌다.

다시 송화강 강가에 나타난 영광은 하루가 질풍같이 지나간 것만 같았다. ‘다른 약사는 있는가? 물론 있겠지. 수준은 어떨까? 뭐 그런 것 따져서 뭘 해.’

신록이 눈부신 강가 가로수를 따라 걷는다. 모든 일을 끝낸 것처럼 흥분하기도 했고 새로운 일이 닥쳐올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기도 했다.³⁶⁾

영광은 하얼빈에서 극장을 운영하는 흥이를 찾아갔으며, 흥이는 색소폰을 부는 그가 일할 곳을 알아봐 준다. 주선을 마친 후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하고 영광은 흥이와 인사를 나누면서 강바람이나 쐬고 가겠다고 한다. 흥이든 그 외 인물이든 영광은 만난 사람과 함께 송화강으로 가자고 청하지 않는다. 그가 송화강을 찾는 이유나 목적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무목적이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때 가는 곳,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마친 후 가는 곳이 송화강이기 때문이다.

영광은 관광을 위해 이곳저곳을 다닌 것이 아니다. 그래서인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때면 새롭게 방문한 곳을 관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제 강을 향해 간다. 아마도 그 강이 송화강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토지』에서 그러한 인물 행동이 이루어지는 곳은 송화강이

35) 박경리, 『토지』 20권, 마로니에북스, 2012, 49쪽.

36) 위의 책, 66쪽.

며 그 인물로 인해 송화강의 특성이 형성된다. 『토지』에서는 설 수 있고 이런 저런 아무 생각이나 해도 되는 곳이 송화강이다. 조국을 떠나왔기에 주위에 아는 사람도 없어 행동이 자유로운 곳이다. 그만큼 인물 간의 결속력이나 유대감, 관계성을 송화강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물론 민족의식 속에서 등장하는 송화강은 끈끈한 공동체성이 발견되지만, 이것은 개념으로서의 공동체성이며 일상생활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성은 부재한 곳이 송화강이라고 할 수 있다.

늘 가깝게 있는 짙은 산과 하나의 풍경을 이루던 섬진강과 달리, 송화강은 “야트막한 산”이 멀리 보이거나 “야트막한 수림”이 보인다. 길림의 송화강 강가에는 “묵직한 중량”으로 버드나무가 있어 “버들 그림자가” 강물에 드리워진다. 강가에는 잡상인이 “과일이며 조롱에 든 새, 자잘부레한 골동품 엽전 따위를 퍼놓고 오가는 사람들을 한가하게 바라보고” 있다. 강 언덕 저편으로는 “고딕식 성당”이 서 있어 이국적으로 보인다.

송화강의 이국적인 모습은 하얼빈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얼빈 송화강의 주변은 광장이 조성되어 가로수가 길게 뻗어 있으며, 그 광장 한 쪽으로는 석조건물의 호텔이 있다. 하얼빈의 대도시적인 특성 속에 송화강이 어우러져 있다.

어제 왔을 때도 그 생각을 했지만 길림에서 본 청록빛, 문어날 것만 같은 영롱한 송화강이 하얼빈의 이 송화강과 같은 물줄긴지 의심스러웠다. 넓기로 말하자면 하얼빈의 강이 훨씬 넓어 보였다. 그곳이 유장 애연하다면 이곳은 거칠고 준열하다 할까. 삶의 긴장이 있는 듯했다. (중략) 큰 돛단배와 기관선이 지나가고 있었다. 도대체 송화강의 길이는 얼마만큼인가. 지도상으로는 그렇지도 않겠지만 느낌으로는 산해관(山海關)에서 다렌(大連), 압록강 하구까지 새알만 한 해안선을 빼고 나면 바다가 없는, 엷드린 거대한 내륙, 만주땅을 모조리 껴안고 송화강

은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강변 가로수의 신록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영광은 시야 속에 들어오는 강물과 야트막한 수림과 하늘을 바라보며 강 너머, 강을 넘어서 끝없이 가면 흑룡강이 나타날 것ियो 그 강을 넘으면 시베리아, 영광은 시베리아를 꿈꾼다.³⁷⁾

인용문에서처럼 송화강을 바라보며 영광은 이런 저런 정처 없는 상상을 펼친다. 『토지』에서 섬진강은 농촌의 강이며, 송화강은 도시의 강으로 대비되어 나타나는데, 사실 송화강과 함께 여러 물줄기가 모이는 길림은 수전(水田)을 일구기에 용이하여 농사를 주요 생업으로 여기는 조선인들이 많이 이주한 지역이라고 한다. 중국에서도 중요한 발농사지대가 송화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송화강이 중요한 교통로인 것 역시 『토지』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렇듯 실재하는 지역 특성의 정보를 작가는 얼마든지 선택적으로 활용하므로 실존하는 지명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작품 속에서는 실재와는 다른 지역성을 형성하게 된다.

4. 결론

오늘날 지역성 연구는 중앙과 지방이라는 행정적 경계로부터 생겨난 결핍된 공간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거의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지역성은 다양한 학문과 정책에서 유용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있다. 지역성은 공간을 근간으로 하며, 문학 연구에서 공간 연구는 중요한 위상을 지니고 있기에, 문학작품의 공간 연구에 지역성 개념이 활용되는 것은 밟아가야 하는 수순처럼 여겨진다. 문제는 단 하나의 지역성 개념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 분야마다 적절한 지역성이

37) 박경리, 『토지』 20권, 마로니에북스, 2012, 49쪽.

개념이 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물론 서로 다른 분야에서 지역성 개념을 공유하고 차용하거나 응용하면서 서로의 연구를 풍성하게 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섬진강은 등장인물들에게 죽음과 이별, 기다림의 장소로 의미 있는 공간이며 이를 통해 가족 공동체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서술자에 의해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은 역사적인 장소로서 부각되는데, 이를 통해 섬진강에 역사성이 희미하게나마 부여된다. 서술자가 언급한 그 역사가 실제로는 중요한 민중혁명의 역사이지만 『토지』의 섬진강에 부여된 지역성에 그 실제 역사가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다루어진 것은 아니며, 다만 등장인물의 행적을 강렬하게 부각하는 데에 이용할 뿐이어서 섬진강의 지역성에 민중혁명의 역사성을 부여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그러한 의미 부여가 『토지』 소설 속 섬진강의 지역성을 이해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섬진강에서 등장인물들은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감하며, 이 공간에서 일상을 살거나 중요한 소식을 나누며 연대한다. 다시 말해 섬진강의 지역성에는 혁명보다 일상생활을 통한 마을 공동체성이 잘 담겨있는 것이다. 섬진강에 몸을 담그거나 일상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민이나 장돌뱅이 등등의 인물들과는 달리 양반들은 그곳에 거리를 두고 있어 섬진강은 서민성을 지닌 공간이 된다. 이러한 특징들이 종합적으로 『토지』에서의 섬진강의 지역성을 이룬다.

송화강은 섬진강과 달리 『토지』에서만큼은 일상생활을 찾아보기 힘든 공간이다. 실존인물 독립운동가가 등장하고, 서술자가 역사적인 사실을 진술하면서 송화강은 민족적인 의미를 강하게 부여 받는다. 그 외 조선의 독립을 갈망하는 등장인물들에 의해서도 민족적인 의미가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송화강의 장소성은 개인의 생활이 아니라 의식, 즉 민족의식을 통해서 의미를 지니며, 관념에 의한 공동체성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지닌다. 이것은 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로서 송화강을 기억하

고 있는 것과 대비되어 더욱 선명해진다. 그런데 송화강을 직접 찾아가는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묘사된 송화강의 정경들은 오히려 이국적이고 무목적적이어서 민족적 공동체성에 현장감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다. 등장인물 간의 유대감이나 관계성을 송화강에서 찾아보기는 힘들다. 다시 말하자면 송화강은 이미 타국, 타민족의 공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족의식으로 점유하고자 하는, 생활과 의식이 괴리된 공간이다. 이러한 『토지』에서의 송화강의 지역성은 실재하는 송화강의 어떤 시기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지역성임이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재하는 지명 공간을 사용한 소설 『토지』에서 ‘강’이라는 공간, 특히 섬진강과 송화강의 지역성을 작품 내 자료만으로 파악해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장소성을 지역성의 중요한 한 축으로 두고, 다른 한 축으로 공간 구성 요소에 따른 인물행동이나 사물묘사로서 이루어지는 특성-공간 구성 요소에 따라 형성되는 아우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을 보탬으로써 한 공간의 지역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어쩌면 실재하는 공간의 지역성을 연구하는 데에 방법론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토지』에서 대비되는 섬진강과 송화강의 지역성을 분석하는 데에 그쳤으나, 이후 『토지』에 등장하는 다른 강들의 지역성도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각각 강들의 지역성에서 공통 특성과 차별화한 특성을 파악해낼 수 있다면, 지역성 연구가 앞다투어 고유성을 찾는 소모적인 방향이 아니라 넘나드는 지역성을 발견하여 지역 간에 시너지를 얻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텍스트

- 박경리, 『토지』 1~20권, 마로니에북스, 2012.
박경리, 『만리장성의 나라』, 나남출판사, 2003.

2. 논문과 단행본

- 권순공, 「남한강의 문학지리와 로컬리티」, 『어문연구』 제100호, 어문연구학회, 2019, 85~115쪽.
김근호, 「문학교육에서의 지역문학 및 지역성 수용의 동향과 전망」, 『국어교육연구』 제72호, 국어교육학회, 2020, 241~274쪽.
김한배·박병훈, 「도시재생의 실천적 움직임과 지역성 개념의 변화 고찰-워드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한국경관학회지』 제12권 1호, 한국경관학회, 2020. 6, 16~28쪽.
김희재·길태숙, 「지역문화콘텐츠의 지역성을 바라보는 관점」, 『2017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17, 93~96쪽.
문재원, 「문학담론에서 로컬리티 구성과 전략」, 『한국민족문화』 제32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10, 91~97쪽.
박형준, 「한국소설에 재현된 '장항'의 장소성 연구」, 『한국민족문화』 제76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8, 89~114쪽.
심진호, 「지역성의 역사: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즈와 옥타비오 파스의 시학」, 『영미영문학』 제88호, 영미영문학회, 2008. 9, 109~132쪽.
이승윤, 『10개의 공간을 따라 읽는 소설 토지』, 도서출판앨피, 2021.
조은숙, 「『타오르는 강』에 나타난 영산강의 장소성 연구」, 『어문논총』 제26집,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4, 213~241쪽.
주재원, 「만들어진 지역성: 상상된 고향과 내부 오리엔탈리즘」, 『한국방송학보』 제34권 5호, 한국방송학회, 2020. 9, 186~218쪽.
Tim Cresswell, *Place*, 심승희 옮김, 『장소』, 시그마프레스, 2012.

| Abstract |

A Study on the Locality of the Seomjin River and
Songhwa River in Park Kyong-Ni's novel *Toji (Land)*

Cho, Yun-A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meaning and value of space formation based on literary imagination by understanding the spaces of 'rivers' in the novel *Toji(Land)*, which used the names of spaces that actually exist, and in particular, by looking into the locality of the Seomjin River and Songhwa River. In particular, it analyzes such spaces by 'locality' to present 'locality' research methods to the spatial research of novels.

The Seomjin River is a significant space as a location of death, parting, and waiting for the characters. Also, it is magnified by the narrator as a historical place where a considerable amount of people shed blood. The characters closely communicate and sympathize, living within the space or being in solidarity while sharing important news. This displays the locality of the Seomjin River, which has a sense of folkishness along with a sense of town community.

In the case of the Songhwa River, an independence fighter who was a real person appears and it is granted strong national significance as the narrator states historical truths. In addition, national significance is repeatedly mentioned by characters longing for the independence of Joseon. The locality of the Songhwa River has specificity in that a sense of community is found, not in living but in concept, or in other words, only with regard to national

consciousness.

This study analyzed the contrasting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two rivers in *Toji(Land)* and it has value as it made new attempts in spatial research by defining and applying 'locality' as a term that includes placeness or national consciousness.

Key Words: Park Kyong-Ni, Novel *Toji*, Space research,
Seomjin River, Songhwa River, Locality, Placeness,
Community, National consciousness

· 논문투고일: 2021년 9월 23일 · 심사완료일: 2021년 10월 20일 · 게재결정일: 2021년 10월 24일